



다양한 “출산문화”에 대하여

박 문 일
대한태교연구회 회장, 한양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

20세기 중엽, 현대 산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출산의 방법도 현격한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출산의 현대의학화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커다란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산과 의사들은 정상적인 임신과 분만의 경우라고 할 지라도, 출산과정 중에 의사들의 지속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수술용 기구와 호흡기, 그리고 많은 양의 투약이 점차 일반화되어 갔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태아감시장치 등이 등장하면서 제왕절개술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산과 의사들이 최근 이러한 경향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상 자연분만에 대한 가정에서의 출산과 현대적인 산부인과 병원내 출산 중 과연 어느 것이 안전하며 가족들에게 좋은 것인가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또한 출산과정의 경험이 아이의 인격과, 부모와 아이간의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도 높아졌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결국 다양한 방법의 출산문화로 발전하였으며, 결국 부드러운 분만환경(gentle

birth)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부드러운 분만환경 (gentle birth)”이란 출산중, 특히 진통중에 “가능한 적은 고통과 피로움으로 분만하는 환경”을 일컫는 단어이다. 또한 “임산부가 주도하는” 분만환경이며, 임산부의 “의식이 있는” 분만환경이며, 현대적 산과의 발전과 함께 도입된 각종 인위적인 “조작”을 물리치려는 분만환경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분만시 임산부와 태아에게 가능한 적은 스트레스를 주게된다.

Gentle birth에서 추구하는 것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 임산부에게 편안한 진통 및 분만자세를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분만 환경에서 특히 강한 빛과 소음을 차단하여 임산부의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한다. 셋째, 분만환경에 현대의학이 도입되면서 등장된 각종 인위적인 조작들, 즉 인공양막파막술, 진통제 투여, 자궁수축제의 투여, 무통마취, 회음절개술 등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재고(再考)해 보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Gentle birth 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에 대한심신(心身)산부인과학회에서는, 임신과 관련된 정신과적 문제와 분만시의 여러

가지 자유스러운 자세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임신시의 정서적인 문제는 간호학계에서도 많이 다루어진 주제이었다. 1999년에 창립된 대한태교연구회에서는 월례집담회를 통하여 태아의 통증, 소프롤로지분만법, 임신의 양자의학적 고찰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 졌다. 또한 분만자세,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회음절개술에 대한 논문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2000년 2월에, 대한태교연구회에서는 산부인과 개원의와 의학계, 간호학계를 대상으로 한 특별 연수강좌를 개최하였는데, 그 주제는 “다양한 출산문화”이었다. 많은 의학자들과 개원의사들이 참가한 이 세미나는 우리의 출산문화를 학술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현대의학이 도입되면서 사실 여성은 분만 환경에서 주도권을 상실해 왔다. 분만실에서 진정한 주인은 자신들인데도 임신부들은 출산환경에서 도외시 되어버린 것이다. 분만이라는 과정은, 사람을 만든 조물주가 선사한,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누구나 혼자일지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현대의료의 등장과 함께 병원이라는 틀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사람은 자연스러운 생리학적인 출산에 대해 거의 잊고 있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분만환경이더라도 여성에게 분만실에서 자신들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임신부들로 하여금, 분만에 적극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스스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임신부의 피동적인 또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

극적인 자세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적극적 분만이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진통과 출산과 관련된 방법들 그 자체가 모두 적극적인 분만요소가 된다. 능동적인 출산이란 결국, 한 여성이 자기 본능과 자기 몸의 생리학적 방법에 의해 행하는 것이다. 출산동안 자기 몸 자체의 명령에 의하여 지배받으면 되며, 이끌려 가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면 되는 것이다.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분만을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여성은 스스로의 몸에서 솟아나는 힘을 느낄 수 있다. 즉, “출산의 주도자로 행세해 보자”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어도 분만에 대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분만환경에서 형편없이 구겨지는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태어나는 아기에게도 인생의 가장 좋은 출발과 자궁에서 밖으로 나오는 안전한 길을 열어주는 일이 된다. 여기에 의료인들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양한 “출산문화”를 논의할 시점이 되었고 생각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탄생의 환경에 의료가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실제로 수 많은 고위험임신에서는 최첨단 의료가 임신부와 태아의 귀중한 생명을 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현대의료는 말 그대로 위험성이 높은 즉, “고위험임신”을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최첨단 의료기술이 “정상” 임신부들에게도 모두 적용되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의료의 남용이며 동시에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PK**